

제주사회복지신문

제22호

2009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운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2개월 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 이민자(국적취득자 및 미 국적취득자 포함) 1444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30명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돼 성별·연령·학력·취업상태·가족갈등 등 일반적 특성,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국적별·지역별·예산행정 투입대비 사회적응도 지표 분석 등 사회통합도 측정에 관한 사항, 취업 등 경제적 자립요구 분석과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잠재적 직업능력 분석 및 취업지원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분석은 오는 11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정영태 박사가 총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9곳이 있으며, 제주에는 1곳이 운영 중이다.



△7월 2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아이들이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아이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

아이들이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 7월 28일 출범 도내 42개 기관·단체 참여...저출산 극복 다짐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각계 단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아이들이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는 7월 28일 전제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김태환 제주지사, 42개 기관 단체·대표,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범도민적 출산장려운동에 나섰다.

출범식에서는 여성과 아이, 임산부,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YWCA 김정열

회장 등 5명의 여성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운동본부 참여 대표 기관·단체들은 권리 선언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 선언문'을 통해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선도활동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게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활동 적극 전개 ▲가사노동과 육아 분담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동참 ▲출산·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각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태환 지사는 인사말을 통

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가정에 의존하는 출산 정책을 행정과 사회가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제회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체 보육 아동의 80%를 책임지고 보육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육·교육시설을 늘리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동화구연, 어린이 태권도 시범, 다자녀가족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으며, 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전시 홍보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3억6400만원을 투자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시설보강 등을 마무리함에 따라 7월 20일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돼 한차원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응급환자 병상을 12개 병상에서 20개 병상으로 늘리고, 인공호흡기와 초음파검사기, 이동 X-레이 촬영기, 환자감시장치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했다.

또 응급의학전문의 3명을 포함해 전담의사 5명과 간호사 13명이 배치돼 24시간 응급실 근무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은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은 2000년 8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돼 왔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 7월 기초장예연구 자금
시설탐방-제주장애인요양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7급 청소년 멘토링·소식마당
시각장애인 댄스스포츠 1위
- 오피니언 6면
컬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복지시설보수교육

탐 초·중·고 전문학원

학부모님들이 교육효과에 100% 놀랍니다.

(부설교육)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몰입교육

차일드 유 영어교실



원장 고 경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수석부회장
온누리봉사회 초대 회장 / 손뜻모아봉사회 2대 회장

제주시 화북1동 1239-6

연락처. 722-3553, 721-8553, 017-691-3553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지급

사회안전망구축·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기대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2급 장애인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39만5000원에 그쳐 65세 이상 노인 58만4000원보다 낮은 실정이지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 50만9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13.4%인 6만8000명밖에 되지 않는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림 청소년문화의 집 7월 29일 개관

컴퓨터실·북카페 등 갖춰...동아리 활동 활성화 기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한림 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7억1400만원(국비 5억71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착공한 한림 청소년문화의 집이 7월 29일 김태환 제주지사와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사진〉

지상 2층, 연면적 666.6㎡ 규모로 지어진 한림 청소년문화의 집은 컴퓨터실과 독서실, 취미클럽, 북카페, 방과후 교실(교사실) 등을 갖췄다.

제주도는 대정읍 등 인근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던 한림읍 학생들이 관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취미활동은 물론 지역 청소년 간 동아리 활동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사업인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어서 방과후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현장체험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여성 절반 “이상적 자녀수 2명”

도 인력개발원 설문조사... “여건되면 더 낳을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경제적 부담 경감책 등 필요

도내 주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이 펴낸 ‘제주지역 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보육시설에 3세 이하 영아를 맡기고 있는 어머니 38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을 약간 웃도는 50.7%가 이상적 자녀수를 2명이라고 답변했다. ‘3명’이라고 답한 경우도 43.5%에 달했다. 이는 현재 자녀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출산여건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를 둔 주요 동기에 대해서는 73.7%가 ‘가정 행복

의 근원’이라고 답해 전통적 자녀관에서부터 상당히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9.2%는 임신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10명 중 6명은 임신 전 임신 및 피임, 출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율이 높았으며, 출산 후 아기와 경험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시 동반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58.4%, 제왕

절개분만이 41.6%였다.

여성들은 60일을 산후조리 적정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분만 후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5일에 불과해 실제 산후조리기간이 평균 25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1명꼴(27.1%)로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뒀으며, 출산휴가기간은 3개월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다. 수유방식은 혼합수유 48.9%, 모유수유 37.6% 순이었다.

제주도 인력개발원은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남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 조성, 모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출산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제주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대출금 지급방법을 7월 15일부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했었다.

제주시는 분할지급이 대출신

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자는 대출신청시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지급을 받았어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받으면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붙임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애·비장애청소년 “우리 친구됐어요”

탐장북, 청소년 통합캠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7월 27~28일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장애 및 비장애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여는 세상-우리 친구됐어요’를 주제로 제8회 청소년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장애·비장애인들의 사회통합 밑거름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여름방학 기간에 해마다 실시돼 공동체 생활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서로



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탐장북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청소년에게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기반조성을, 비장애청소년에게는 장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초보 임신부 멘토·멘티교실

제주지역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기 초보 임신부 멘토·멘티교실’을 운영했다.

초보 임신부 멘토·멘티교실

에서는 초보 임신부와 가입기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수유방법 및 수유지제, 아기마사지, 신생아의 주요 질환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4차례 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620,000	62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500,000
자원봉사후원	860,000	860,000
복지사업후원	1,585,000	529,87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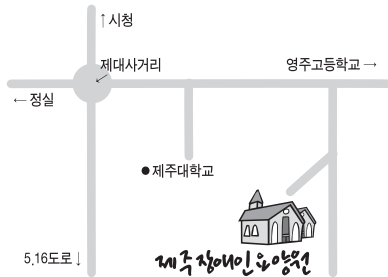
시설탐방

(21) 제주장애인요양원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메카

2002년 3월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는 제주에서 첫 문을 연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오후,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장애인요양원을 찾았다.



전문 섭식케어 등 제공...평생학습체계 구축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제주장애인요양원에는 7월말 현재 아동부터 성인까지 뇌병변, 지체, 지적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4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입소 장애인의 개별 장애 정도와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서비스 및 의료, 물리치료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케

어와 재활, 자립,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케어·자립생활·재활훈련지원서비스팀으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전적인 시설운영은 물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 뉴패러다임 컨설팅을 실시해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재활프로그램의 메카'라는 비전을 제수립하여 장애인요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중증장애아동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섭식케어프로그램'은 2007년 공동모금회 지원을 발판삼아 지난해와 올해 현대자동차 지원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제주장애인요양원의 특화사업으로 섭식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아동들의 섭식기능을 향상시키고, 사례발표 및 책자발간을 통해 섭식과 관련된 교

육과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섭식케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 메트라이프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한 테마 지원프로젝트-We can do it!' 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난 7년여간 쌓아온 노력들이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 가족과 소원한 성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내 가족지원봉사단과 결연을 맺어 제2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햇살가족만들기'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강혜정 사무국장은 "지난 7년은 제주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영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힘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왕 원장은 "요즘 사회 복지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어려운 사회복지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의=702-2320~1.
www.jejucaarehome.or.kr.
〈현경애 명예기자〉



제주·서귀포시, 아동 1만여명에 급식 지원

제주시는 7월 9일 제주시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하반기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6553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5950명보다 603명 늘어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방학기간에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아동 4351명과 읍·면·동 복지위원 등을 통해 자체 발굴된 급식 필요아동 2202명이다.

급식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7곳을 통해 ▲도시락 지원 70명 ▲주·부식지원 5672명 ▲지역아동센터 아동 811명에 직접 조리음식으로 제공한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주·부식 대신 식품권으로 지원한다.

제주시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도 7월 16일 서귀

포시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 여름방학 이후 하반기 급식지원 대상자 3473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교육청에서 방학기간 급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1827명과 기존 지원대상자 3032명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여 중복대상자 1286명과 전출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100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석식 지원대상자 126명에게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서귀포지부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9개 식당에서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다.

중식 지원대상자 2606명 가운데 읍·면 지역 아동 1317명에게는 마트 3곳과 서귀포요양복지센터에서 주 1회 가정으로 주·부식을 배달하고, 동 지역 아동 1289명에게는 마트 10곳과 계약을 체결해 식품권을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41명은 해당 시설에서 직접 조리해 지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만원 지원

제주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가운데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족 기준 월소득 인정액 129만원, 4인 가족 159만원, 5인 가족 188만원, 6인 가족 218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씩 추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다.

신청아동 644명 중 352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동은 월령 23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 전체 만 5세 이하 아동 3만7000여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만6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8300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 실시

사회복지관 등 13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까지 교수와 현장 실무자, 담당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 시설 운영의 지원 등에 반영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사회복지

관 8곳, 노인복지시설 2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곳 등 총 13곳이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분야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인적자원관리 분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분야 ▲지역사회관계 분야 등 6개 분야 80개 세부평가 지표에 따라 실시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지도 및 시설간 업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특성화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가정 희망 메신저 역할 '톡톡'

Double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봤다. 이중으로, 두 배의 가치, (1인) 2역을 하다 등의 의미였다. 이 단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를 논할 때 흔히 덧붙여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언급한다. 그 때 **Double**이라는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Double**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미랑이는 대학생 선생님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오늘(7월 21일)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미랑이네 집을 찾는다. 미랑이가 멘토 고진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4년) 선생님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인연을 맺은 지도 4개월이 넘었다. 멘토 선생님과 영어 공부를 하는 내내 수줍은 듯 하면서

도 공부에 집중하는 미랑이의 모습에 한여름 무더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다.〈사진〉

미랑이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이 옆에서 바로 가르쳐 줘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 좋다”며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불의의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된 미랑이 아버지는 “부모로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채워 주고, 미랑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바랄나위 없다”고 말했다.

‘장애가정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사업’이 장애가정의 희망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애가정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사업’은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장애가정 청소년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은 자원봉사 대학생이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하는 프로그램.



제장북, 장애가정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사업

제주에서는 저소득 장애가정의 장애·비장애 초등학생 15명(멘티)과 대학(원)생 멘토 15명이 결연을 맺었다. 멘토는 멘티에게 학습지원과 일상생활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원어민 영어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7월 말에는 특별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에서 열린 여름캠프에도 참여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

계자는 “이 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의 멘토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장애가정 청소년의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멘토의 구성이 다각적으로 이뤄져 장애가정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보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지적장애 3급 김수아씨 장애인 극복대상 수상

올해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해 화제가 됐던 지적장애 3급 김수아씨(39)가 7월 7일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제5회 지적장애인의 날에서 장애인 극복대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룬 김씨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에서 근무를 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일배움터 원내캠프 실시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6월 18~19일 재활프로그램반을 대상으로 원내캠프를 실시했다.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원내캠프에서는 일상생활 프로그램 실시 및 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시설 이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빛누리공원을 방문, 3D 체험관과 천체망원경, 기타 시설물을 관람하기도 했다.



자원봉사리더아카데미교육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7월 16일부터 2일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09 자원봉사리더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식/마/당

WITH 청년사업단, 경로당 대청소



제주관광대학 WITH 청년사업단(단장 전영복)은 7월 7일 신산경로당과 도련2동 경로당, 수산리 경로당, 용마경로당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대청소활동을 전개했다.

WITH 청년사업단은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 경로당 40곳에서 노인상담, 지역사회자원개발 경로당 연계,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복지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7월 18일 올림피아국민생활관에서 박영부 서귀포시장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홀라후프 돌리기와 몸빼 바지 입고 달리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의 장이 됐다.

위탁가정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건강한 위탁가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위탁부모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가정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기법, 좋은 부모 역할, 웃음을 통한 갈등해결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라복지관 인생사 이야기 진행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2009년 제주시지원 특화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생사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생사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하기 위한 학교로써 죽음에 대한 이해 및 자서전 만들기, 화장문화에 대한 강의, 남골당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등 실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지난 5~6월 영평초등학교(교장 홍환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진로탐색프로그램(I have a dream)은 아동들이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긍정적인 진로발달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클릭! On-Off 주인은 나!)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유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연탐방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탐모리봉사대(대장 이정선)의 후원을 받아 6월 27일 '유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연탐방'을 진행했다.

탐모리봉사대 대원들은 이날 유리의 성과 소인국테마파크 등 도내 관광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트너 발 만지며 동작·스텝 배웠어요”

시각장애 1급 오순연씨,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삼바 1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지하 연습실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댄스스포츠 연습에 한창인 시각장애 1급 오순연씨를 만났다.

7월 12일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에서 시각장애 인부 라틴 종목 삼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제주시각장애인 댄스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그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제 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삼바와 파소도블레 두 종목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녀는 제주인성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시각장애인의 재활향상을 위한 댄스스포츠’ 교육사업의 지원으로 매주 금요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댄스스포츠 교실’에 참여하면서 감사의 눈에 발

탁돼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 선수로 발탁되었을 때 부담감은 컸지만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었다는 그녀는 “평소 앓고 있었던 관절염의 통증도 잊어버릴 정도로 음악과 동작에 완전히 취해 즐겁게 연습했다”면서 “장애가 없었으면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모를 뻔 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동작과 스텝을 배우기 위해 강사와 파트너의 발을 만져가며 터득하고 소리에 의지해 배우는 게 어렵다”는 그녀는 “강사 선생님(댄스스포츠연맹 한효심 원장)과 파트너(문치웅 선수)의 끊임없는 격려와 배려로 뜨거운 합성과 갈채를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회 파트너였던 문치웅씨는 “시각장애와 60세의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순연씨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오순연씨(왼쪽에서 2번째)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대회 출전을 위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강행군 연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배웠다”며 “그녀의 그런 노력에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파트너를 추켜세웠다.

그녀는 7월 5일 ‘제10회 제주 색동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 출전, 비장애인과의 실력을 겨뤄 ‘퐁퐁이와 툴툴이’라는 작품으로 동상을 받기도 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을 받아 시

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동화구연 교실을 담당했던 김선희 사회복지사는 “그녀는 교회에서 주일 유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점자대본을 매일 갖고 다니며 준비했다”며 “여성시각장애인의 가치 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명예기자>



재활승마치료 프로그램 진행 창암교육활동센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는 제주해안경비단 129전경대(대장 이태안)의 도움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중증장애인의 문제행동 수정을 위한 재활승마치료 프로그램을 준승마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다.

창암교육활동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직 또는 경련성 근육 스트레칭, 심폐기능 향상, 혈액순환 개선, 자신감 회복 등 심리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의 균형감각 유지와 집중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랑의 열매, 2억9천만원 개인긴급지원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2009년 개인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상반기 동안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총 234건에 2억 9085만848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인긴급지원사업’은 재난, 재해 및 질병, 주소득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시급한 생계·의료·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지원된 긴급지원사업비는 ▲생계비 81건 5470만원 ▲의료비 68건 1억835만8480원 ▲주거비 85건 1억2780만원이다.

올해 총 예산은 4억 5000만원이며, 지난해 개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792건에 3억



4038만5108원이다.

박찬식 회장은 “작은 나눔의 정성들이 모여 커다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금·홍보캠페인으로 나눔문화 정착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사랑의 열매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인긴급지원사업 외에도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니어클럽 ‘바다사랑지킴이’ 운영

제주시니어클럽은 해안가 쓰레기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감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58명이 참여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행 보름만인 7월 14일 현재 10t에 가까운



해양쓰레기 9349kg을 수거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정신요양원서 봉사활동 한전KPS제주사업소

한전KPS제주사업소(소장 김수민) 직원들은 7월 28일 제주정신요양원(원장 전내영)을 찾아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낡은 등기구와 형광등, 전기제품 교체 봉사활동을 했다.



6·7월 식품기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생수 (1.5l) 4000개, 감귤주스(150ml) 4000개 ▲ 제주은행 = 생필품류 200개 ▲ (주)금강축산유통 = 육류 490kg ▲ 풍인건설 = 라면 2000개 ▲ 기본좋은축산마트 = 육류 50kg ▲ 산방미곡 = 쌀 100kg ▲ (유)제주종합식품 = 채소류 1105kg ▲ 명도암관광휴양목장 = 유기농채소류 15kg ▲ 김금순씨 = 양파 20kg

제5회 장애인영화 사전제작지원 공모

제주DPI, 이달 말까지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해마다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사)제주DPI는 제5회 장애인영화 사전제작지원을 이달 말까지 공모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의 영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개인(단체)별 1개 작품에 한한다.

제주DPI는 공모를 통해 5편 이내의 작품을 선정,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는 5명 이내의 영화 전

문가와 인권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주제의 명확성 ▲기획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시나리오의 작품성, 독창성, 참신성 등이다.

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dhff.or.kr) 또는 제주DPI 홈페이지(www.jejudp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주DPI 부설 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10월 말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2010년 제11회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문의=064)757-9897.

사랑의집서 전기배선 설비봉사활동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김경수)은 7월 12일 성심원 사랑의집을 찾아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배선 설비공사 봉사활동을 펼쳤다.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회원들 다양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어 정기적으로 사랑의집 시설물을 관리해 주고 있다.

김경수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 회원들을 모



집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집 생활인은 “에너지를 사랑하는 모임 덕분에 올 여름부터는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며 마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칼럼

장애아통합보육인프라, 행정이 지원해야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전문위원

첫째 아들이 5살 즈음으로 기억한다. 대형마트의 휠체어마크가 선명한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순간 아빠의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황당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아파도 장애인이니 세워도 된다는 설득에도 아랑곳없이 아빠는 세우면 안 된다는 아들이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반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아이의 눈에 묵발 짙은 아빠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고 장애인하면 휠체어가 연상되었던 것 같다. 당시 아들은 통합보육기관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하여 익힌 학습효과인가 싶었다.

장애인 이해 위해 통합보육중요

필자는 장애인이라서 자연스러운 장애인 이해가 있었겠지만 짧

게 경험한 통합보육도 분명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들은 훌쩍 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은 기억 못하지만 나에게는 황당하면서도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통합보육은 비장애아동에게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아동은 또래의 비장애아동과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사회능력 등 여러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끔 장애아동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스킨십 과정의 하나로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부정적 행동은 아닌 듯 싶다.

도내에는 장애아통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7곳이 있다. 국·공립은 없고 모두 민간보육시설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책임감은 생각보다 높다.

며칠 전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원장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제주형 보육모델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도의회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보육모델발전의 연장선에서 장애아통합보육을 주제로 연속토론회 개최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낮은 임금수준으로는 언급생심이라서, 현재의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념과 열정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으로 양적 통합보다 질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빈약한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유아가정과 보육기관을 연계 지원하는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부모와 현장 어린이집에서 높은 호응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인프라 구축소홀해선 안돼

하지만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년 지원사업으로 아쉽게도 올해 말 종료된다. 도의회 김미자 의원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제주도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사방팔방 뚫리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예산의 티끌 정도만 투자해도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다. 사람에게 투자되는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제주도 양성평등과에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겠다.

‘2010제주새싹플랜’에서는 20곳까지 통합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년이 2010년이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한다.

시론

식품기부함에 사랑을 넣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과 식품을 나눠 갖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지난 6월 제주에서도 문을 열었다. 국비 등을 지원받아 마련된 매장에는 쌀, 라면, 양념류, 식재료, 육류, 기타 생필품 등 각종 기부 물품들이 진열돼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이런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이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골라가는 신개념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기존 푸드뱅크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푸드뱅크는 상하기 쉬운 빵이나 급식식품 등 신속하게 소비해야 하는 기부식품을 관리하고 있다면 푸드마켓은 일정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푸드뱅크는 수혜자들을 찾아가는 배달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갖는 반면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을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식품기부액 감소...기부문화 활성화 절실

그런데 푸드마켓이 개점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문을 연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수가 32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에게 돌아간 물품액도 47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매일 아침 매장 문이 열릴 때면 필요한 물품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이용자는 많은데 비해 기부물품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기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전국의 기부식품 이용자를 보면 15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5천명보다 25%나 늘어났다. 그러나 식품기부액은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188억원보다 6.2% 감소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제주지역도 마찬가지. 일부 기업이나 소수의 개인만이 물품을 기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나 뜻 있는 소수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기부문화에서 탈피해 누구나 자발적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부자와 기부물품, 기부장소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식품기부함이 4곳에 설치돼 있다. 푸드뱅크 3곳과 푸드마켓 1곳이다. 그러나 장소의 한정 등으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기부물품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기부함’ 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나 거주지와 가까운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품목 역시 확대돼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잉여식품인 장류, 양념류, 건조식품뿐만 아니라 비누, 치약,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기부물품의 다양화를 위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행이다.

또한 기부식품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대형전광판, 신문, 방송,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주도의 자발적 기부문화는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기고

“예쁜 딸이 생겼어요”



강 민 희
세마을부녀회일도2동분회부회장

제주시 일도2동 다문화센터 멘토사업으로 올해 5월 결혼이주여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처음 방문하는 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처음 만나게 될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심하다 보니 아주 멀게 느껴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대면을 해보니 참하고 예쁜 모습의 베트남 출신으로 그녀의 이름은 ‘미딘’. 제주로 시집온 지 2년이 되었으며, 그녀의 뱃속엔 6개월이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마침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는데 내가 말하기에 앞서 외국인을 며느리로 뵈 보니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얼굴을 붉혔던 일들 등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들을 봇물처럼 쏟아놓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내가 ‘미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줘야 할지 생각을 해 봤다.

미딘! 그녀는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다. 한국에 와서 2년 정도면 웬만한 대화는 이뤄져야 하는데, 바깥출입을 거의 안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 내가 앞으로 미딘에게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하겠구나. 또 한국어 교실에도 참여를 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우선은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게 최우선이야!’ 내가 항상 그녀의 편이 되어준다면 그녀도 나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이렇게 첫 만남을 접고 다른 몇몇 회원들과 결연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하여 토의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다음 만남에서 실천하기로 하였다.

우선 몇 명의 회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서로 간에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미딘의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같이 외출하면서 주변의 문화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쇼핑도 하고 오락도 오르며 점차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서로를 더 챙겨주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그녀의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점점 제주의 며느리로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이들에게 앞으로 문화나 관습이니 하면서 주변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 그녀들에게 편만한 친정아버지 되어주려나. 새로운 세계에 와서 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을 때 주저없이 찾아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친정엄마, 그런 ‘방문가사지도사’가 되어주려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희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란다.

‘우리 딸들, 사랑한다!’

■ 제주도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클라이언트 등에 대한 윤리기준 확고해야”

제주도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주최로 시설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실시됐다.〈사진〉 본지는 강의 내용을 강사별로 요약, 정리했다.



≫ 제주장애인요양원정석왕 원장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윤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것이 전문기술적인 것이라도 윤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매일매일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사회복지전문가 윤리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윤리적 결정이 요구될 때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 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고 원칙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언제나 윤리적 문제 결정에 당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한 가지 긍정적 기회와 다른 한 가지 부정적 기회 중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당면하는 것이 아

니라, 두 가지 긍정적인 것 혹은 두 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선택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숙련된 사회복지사는 주어진 선택의 기회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장 윤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권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지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직업적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윤리적이고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자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직장동료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을 확고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 성공회대사회복지학과김용득 교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인의 인권 침해, 대형시설의 밀려들기,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위소 선택권의 강화와 아울러 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시설평가 제도의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등의 대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를 이용자의 선택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 불편해소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지원서비스 개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거주 시설을 현재의 생활시설 중심에서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체제로 변경하고, 시설의 규모를 소규모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재편성하며, 시설 선택 제도의 전제가 되는 서비스 표준화와 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서비스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교남어지동산윤덕찬 원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참여 매뉴얼 교육’

최근 들어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개편, 장애수당 확대, 활동보조지원제도도입, 장애인요양제도 추진, 장애인관정 체계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용자참여 증진요구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 참여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용자란 사회복지나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참여란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용자 참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적 및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의 이용자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적용은 절반 정도의 이용자나 일부 선택적인 적용만 이뤄지고 있으며,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이용자 참여와 퇴소과정에서 참여는 그 적용도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또 서비스 과정에서도 보호자나 가족의 참여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직원들의 인식의 변화인데, 보호자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이용자가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이용자의 참여 관련에서의 일상생활 행동을 제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임성만 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해’

한국장애인인권의 현실은 차별·행정절차상의 차별, 교육차별, 고용차별, 의료권 침해, 재화 및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실태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고, 장애인은 원시접수 조차 거부당하고, 현실적인 인권의 격차,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심지어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배제당하는 일 등이 있다.

임 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 차별은 복합적이고 연쇄적이며 생의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장애의 분리는 사회구조적인 분제이므로 시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내용을 보면 첫째, 장애인 차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고용·교육 등 각 영역의 차별규제 행위 구체화 셋째, 정당화권의 제공의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부여 네 번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규정 다섯 번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특별규정 여섯 번째, 차별시정기구와 실효성 있는 구제책 마련과 같다.

장차법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보면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상 장애인 차별 개선, 장애인 공무원 시험 지원책,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승소, 청각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화통역 지원책 공고, 국가 기술자격 상설검정 시험에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라원 **한라원작업활동시설**은
제과제빵작업활동과 콩나물재배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한라원 청정콩나물은 제주산 콩으로 재배하고,
한라원 베이커리는 무색소, 무방부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라원 청정콩나물

Pure bean sprouts



재배 및 생산과정

콩 세척

콩 불림

재배

콩나물
세척냉장
저장

포장

냉장
운송

소비자

한라원 베이커리

Bakery



한라원작업활동시설

대표전화_ Tel:064-799-9225

홈페이지_ <http://www.hallawon.or.kr>